1 -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정답> ⑤

'부여 송국리에서는 비파형 동검, 거푸집 등 (가)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다수의 집터 등 마을 유적과 고인돌이 남아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의 (가)는 청동기 시대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부여 송국리와 여주 혼암리, 강화 부근리는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이다.

청동기 시대에는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사람들이)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한 것은 구석기 시대이다.
- ② 철제 농기구를 제작하여 사용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이다.
- ③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된 것은 고려 시대의 일이다. 이때에 이르러 밭농사에서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었으며 남부의 일부 지방에서는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앙법)도 행해졌다.
- ④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이다(평등 사회).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계급이 발생하였다(계급 분화).

2 - 초기 국가, 동예

정답> ③

'대군장이 없고, 한(漢) 이래로 후(侯)·읍군·삼로가 있어서 하호를 통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앞의 풍속은 책화이고, 뒤의 풍속은 족외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상을 통해 제시된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임을 알 수 있다.

동예에서는 매년 10월 무천(舞天)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오답 해설>

- ① 초기 국가, 동예는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 ② 낙랑과 왜에 철을 수출한 나라는 삼한 중 변한이다.
- ④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초기 국가는 옥저이다.
- ⑤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한 나라는 초기 국가, 부여이다. 그만큼 왕권이 미약하였다.

3 - 대가야

정답> ①

말풍선에는 '경상북도 고령을 중심으로 발전하던 이 나라의 지산동 44호분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으뜸 돌방을 중심으로 30여 기의 순장 돌덧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고분의 발굴을 통해 이 나라에서 순장이 행해진 것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의 '이 나라'는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끈 고령의 대가야임을 알 수 있다.

신라 진흥왕은 재위 23년인 562년에 대가야를 정벌하여 병합하였다.

오답 해설>

- ②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된 나라는 백제(660)와 고구려(668)이다.
- ③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을 거느린 나라는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
- ④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시행한 나라는 고구려이다(194, 고국천왕 16).
- ⑤ 박, 석, 김의 3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한 나라는 신라이다[이사금 시기, 즉 3대 유리(재위 24-57)에서 16대 흘해(재위 310-356)까지 해당].

4 - 광개토 대왕의 백제 공격

정답> ④

(가)에는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범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고구려왕 사유(斯由)가 필사적으로 항전하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백제 근초고왕(재위 346-375)의 평양성 공격에서 (고구려 왕 사유인) 고국원왕(재위 331-371)이 전사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371).

(나)에는 고구려왕 거련(巨璉)이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한성을 포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이 상황을 어렵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달아나다가, 고구려 병사의 추격으로 살해된' 내용이 나와 있다. (고구려왕 거련인) 장수왕(재위 413-491)의 한성 공격으로 백제의 개로왕(재위 455-475)이 전사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475). 백제는 수도인 한성(위례성)의 함락으로 방어에 유리한 웅진(오늘날의 공주)로 천도하게 되었다(475, 문주왕 원년).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재위 391-413)은 즉위 초 백제의 북쪽 지역을 공격하여 여러 성을 함락하였고, 재위 6년인 396년에는 수군을 이끌고 서해안 쪽에서 공격하여 한강 이북과 예성강 이동의 땅을 차지하였다(이때 왕의 동생과 대신 10인을 볼모로 잡음).

오답 해설>

- ① 신라의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한 것은 재위 14년인 527년의 일이다.
- ② 백제의 문주왕(재위 475-477)이 웅진으로 천도한 것은 수도인 한성(위례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전사한 직후이다(475).
- ③ 고구려의 태조왕(재위 53-157)이 옥저를 복속한 것은 재위 4년인 56년의 일이다.
- ⑤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고 신라에 대항한 것은 642년을 전후한 시기이다(여제 동맹). 일종의 군사적 제휴 관계로 사료상 다소 불분명하다. 어쨌든 이러한 반신라적 움직임에 대항하여 신라는 처음에는 고구려와, 이후에는 왜와 제휴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648년(진덕 여왕 2)에 당과 동맹을 맺기에 이른다(나당 동맹).

5 - 백제의 도교 문화

정답> ④

'문화유산을 통해 보는 백제의 도교 문화'라는 제목이 나와 있다. 이어 '도교가 삼국 시대에 전래되어 우리나라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백제의 도교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 기획전을 마련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 ㄱ. 가야의 철제 판갑옷이다. 가야에서 풍부한 철이 생산되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 ㄴ.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이다. 불로초와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이 조각되어 있다.
- ㄷ.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으로 고구려의 불상이다.
- ㄹ. 백제의 금동 대향로이다. 충남 부여의 능산리 고분군과 나성 사이의 절터에서 발견되었다. 뚜껑 꼭대기에 봉황이 부착되어 있고 뚜껑에는 23개의 산들이 4~5겹으로 첩첩산중을 이루고 있다. 도교와 불교가 혼합된 백제 금속공예 최고의 걸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이상에서 백제의 도교 문화와 관련된 유물은, 'ㄴ과 ㄹ'이다.

6 - 백제 성왕의 업적

정답> ④

위의 사료에는 '왕의 이름은 명농이니 무령왕의 아들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지혜와 식견이 뛰어나고 일을 처리함에 결단성이 있었다'고 나와 있다. 이로써 백제의 제26대 왕인 성왕(재위 523-554)임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사료에는 '왕이 신라군을 습격하고자 몸소 보병과 기병 모두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狗川)에 이르렀다가 신라의 북병을 만나 싸우다가 혼전 중에 왕이 신라군에게 살해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성왕이 배신한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지금의 충북 옥천) 전투에서 전사한 사실을 가리킨다(554).

백제 성왕은 재위 16년인 538년에 사비(지금의 부여)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오답 해설>

- ①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한 백제의 왕은 제30대 무왕(재위 600-641)이다(639, 무왕 40).
- ②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백제의 왕은 제15대 침류왕(재위 384-385)이다(384, 침류왕 원년).
- ③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점령한 백제의 왕은 제31대 의자왕(재위 641-660)이다(642, 의자왕 2).
- ⑤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한 백제의 왕은 제13대 근초고왕(재위 346-375)이다(375, 근초고왕 30).

7 - 발해

정답> ③

답사지가 '러시아 연해주 콕샤로프카성 일대'로 되어 있다. '1'은 '콕샤로프카 평지성 내부의 온돌 유적'이고, '2'는 콕샤로프카 성벽이다. 1의 설명으로 '내부 건물지에서 고구려 계통의 온돌 시설과 토기 등이 발굴되었고, 이러한 유적과 유물은 해동성국으로 불린 (가)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였음을 보여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발해임을 알 수 있다.

발해는 10대 선왕 대(재위 818-830)에 이르러 해동성국으로 칭하여졌으며, 5경 16부 62주의 지방 행정 제도가 확립되었다. 연호로는 '건흥'이 사용되었다.

한 이래 9산 선문을 형성한 '이 종파'는 곧 신라 말에 널리 유행한 선종임을 알 수 있다.

선종은 (경전을 중시한 교종과 달리) 참선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지방관 감찰을 위해 외사정이 파견된 것은 신라 문무왕 13년인 673년의 일이다.
- ②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22담로가 설치된 것은 백제 무령왕 대(재위 501-523)의 일이다.
- ④ 집사부 외 13부를 두고 행정 업무를 분담한 것은 통일 신라 때의 일이다(통일 신라의 중앙 관제).
- ⑤ 상수리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한 국가 역시 신라이다(5세기 이전부터 실시 추정).

8 - 신라 말 선종

정답> ④

'이것은 전라남도 화순군 쌍봉사에 있는 국보 제57호 철감 선사 승탑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은 이 종파가 수용된 이후 9세기부터 유행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도의 선사가 가지산문을 개창한 이래 9산 선문을 형성한 '이 종파'는 곧 신라 말에 널리 유행한 선종임을 알 수 있다.

선종은 (경전을 중시한 교종과 달리) 참선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동경대전을 경전으로 삼은 종교는 동학이다. 수운 최제우(1824~1864)가 지었으며 포덕문(布德文), 논학문(論學文), 수덕문(修德文), 불연기연(不然其然)의 네 편으로 되어 있다.
- ② 단군을 숭배의 대상으로 한 종교는 대종교이다(나철이 1909년에 창시).
- ③ 대성전을 세워 옛 성현에 제사를 지낸 종교는 유교이다. 대성전은 문묘의 정전, 즉 공자의 위패를 모신 전각이다.
- ⑤ 마음속에 한울님을 모시는 시천주(侍天主)를 강조한 종교는 동학이다.

9 - 독도

정답> ⑤

'(가)와 무릉은 거리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는 기록'(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과 '울도 군수 심흥택이 1906년에 (가)가 울도군의 관할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문서(심흥택 보고서)를 정부에 보고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울릉과 (가)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에 명확하게 기록'된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 속 (가)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조선 시대에 독도는 '우산(도)', '삼봉(도)'(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독도는 1900년 10월 관보에 게재된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에서 관할 영토로 명시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몽골에 항전할 때 임시 수도였던 곳은 강화도이다(1232, 고종 19).
- ② 정약전(1758~1816)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섬은 전남 신안에 속하는 흑산도이다(1814, 순조 14).
- ③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가 도착한 곳은 제주도이다(1653, 효종 4).
- ④ 양헌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퇴한 장소는 강화도의 정족산성이다(1866.10).

10 - 궁예

정답> ⑤

'진성왕 즉위 5년에 선종(善宗)이 죽주의 적과 기현에게 의탁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하지만 기현이 업신여기고 예우하지 않자 '선종은 몰래 기현 휘하의 원희, 신희와 결연하여 친구가 되었고 임자년에 복원의 도적 양길에게 의탁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여기서 진성왕은 진성 여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즉위 5년이면 891년이 된다(재위 887-897). 그리고 처음에 기현에게 의탁하였다가 후에 양길에게 의탁하였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제시된 자료의 '선종'은 곧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918)임을 알 수 있다.

궁예는 901년에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건국한 후 905년에 이르러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김흠돌 등 진골 세력을 숙청한 이는 신라의 신문왕(재위 681-692)이다(681, 신문왕 즉위년).
- ② 고창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한 이는 후백제의 견훤(867~936)이다(930, 고창은 현재의 경북 안동).
- ③ (신라의 수도인) 금성을 습격하여 경애왕을 죽게 한 이 역시 견훤이다(927).
- ④ 금산사에 유폐된 후 (고려의) 왕건에게 귀부한 이 역시 견훤이다(935).

11 - 고려 공민왕의 반원 정책

정답> ①

'왕이 원의 제도를 따라 변발과 호복을 하고 전상(殿上)에 앉았었는데 이연종이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니 본받지 마소서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이 기뻐하며 즉시 변발을 풀고, 이연종에게 옷과 이불을 하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배경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공민왕이 즉위를 위해 고려로 돌아와 원 풍습대로 변발과 호복을 한 채 전상(임금이 앉는 자리, 또는 임금을 가리키기도 함)에 오르자 밀직사 겸 감찰대부였던 이연복(?~?)이 이를 고칠 것을 간(諫)한 장면이다.

고려 공민왕은 즉위 후 반원 개혁 정책을 펼쳤으며, 재위 5년인 1356년에는 대표적 친원 세력인 기철을 숙청하였다.

오답 해설>

- ② 김윤후가 처인성(지금의 용인)에서 몽골군을 물리친 것은 고려 고종 19년인 1232년의 일이다.
- ③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것은 고려 의종 24년인 1170년의 일이다(무신 정변).
- ④ 최충(984~1068)이 9재 학당을 세워 유학 교육을 실시한 것은 고려 문종 7년인 1053년의 일이다.
- ⑤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한 것은 고려 신종 원년인 1198년의 일이다(만적의 난).

12 - 상감 청자

정답> ④

'이 자기는 상감 기법으로 고려 시대에 제작한 문화유산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상감은 겉 부분을 파낸 후에 그 자리에 백토나 흑토를 메우면서 무늬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의 '이 자기'는 12세기 중반 이후 유행하기 시작한 상감 청자임을 알 수 있다.

제시된 선지 중 ④가 고려의 독창적인 상감 기법으로 제작된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이다(13세기 제작).

오답 해설>

- ① 조선 후기에 유행한 (순)백자 달항아리이다(18세기 전반 제작).
- ② 상감 청자 이전인 고려 전기에 유행한 순수 청자로, 청자 참외형 병이다(12세기 제작).
- ③ 조선 중·후기에 제작된 철화 백자로, 백자 철화 매죽문 항아리 [호]이다(16~17세기 제작).
- ⑤ 조선 전기에 제작된 청화 백자로, 백자 청화 매죽문 항아리 [호]이다(15세기 제작).

13 - 고려 시대의 주요 사건들

정답> ④

(가)에는 '최우는 정방(政房)을 자기 집에 설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 고종 12년인 1225년의 일이다.

(나)에는 '후주 출신 쌍기가 왕에게 과거 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고,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시험을 통해 진사를 선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 광종 9년인 958년의 일이다. 참고로 지공거란 과거 시험관 또는 과거 고시관을 뜻한다.

(다)에는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할 것을 청하고 스스로 판사(判事)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 공민왕 15년인 1366년의 일이다.

(라)에는 '정지도감의 관원이 남의 땅을 빼앗고 불법을 자행한 기삼만을 잡아다가 죽게 한 일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폐정 개혁 기관인 정치도감이 설치된 것은 충목왕 3년인 1347년의 일이다. 부원파이자 권신인 기삼만이 곤장을 맞고 순군옥에 갇혔다가 죽은 것도 이때의 일이다.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가)-(라)-(다)'가 된다.

14 - 삼국사기

정답> ①

'왕명을 받들어 역사서 편찬을 주도한 인물이 왕에게 올린 진삼국사표'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진삼국사표(進三國史表)에는 '삼가, 본기 28권, 연표 3권, 지(志) 9권, 열전 10권을 찬술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자료에서 가리키는 역사서는 고려 인종 23년인 1145년에 김부식(1075~1151)이 올린 기전체 형식의 『삼국사기』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조선 건국의 정통성을 강조한 역사서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다. 첫째는 삼봉 정도전(1342~1398) 등에 의해 찬진된 『고려국사』(1395, 태조 4) 이고, 둘째는 양촌 권근(1352~1409) 등이 편찬한 『동국사략』(1403, 태종 3)이 그것이다.

③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역사서는 영재 유득공(1748~1809)이 쓴 『발해고』이다(1784, 정조 8).

④ 단군 조선에서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사서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다. 첫째는 사가정(호) 서거정(1420~1488) 등이 왕명을 받고 편찬한 『동국통감』(1485, 성종 16)이고, 둘째는 순암 안정복(1712~1791)이 집필한 『동사강목』(1778, 정조 2)이 그것이다.

⑤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 등을 수록한 역사서는 보각국사 일연의 『삼국유사』이다(1281, 충렬왕 7). 삼국사기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해 집필되었다면 삼국유사는 불교적 신이사관에 입각해 쓰여졌다.

15 - 귀주 대첩

정답> ②

'거란군이 귀주를 지날 때, 강감찬 등이 동쪽 교외에서 맞아 싸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거란군의 시신이 들판에 널렸고, 사로잡은 포로와 획득한 말, 낙타, 갑옷, 무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면서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에서 말하는 상황은 고려 현종 10년인 1019년에 벌어졌던 강감찬(948~1031)의 귀주 대첩임을 알 수 있다[거란의 제3차 침입(1018) 시]. 연표에서는 (나) 시기에 해당한다.

16 - 대구의 역사적 사실(국채 보상 운동)

정답> ④

'2·28 기념 중앙 공원'에서 '경상 감영 공원', '달성 공원 내 (수운) 최제우(1824~1964) 동상', '민족 저항 시인 이상화(1901~1943) 고택'이 답사 경로로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시설 모두 대구에 위치한 것이다.

김광제(1866~1920), 서상돈(1850~1913) 등의 발의로 국채 보상 운동이 처음 일어난 곳 역시 대구이다(1907.2).

오답 해설>

①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에 항전한 곳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이다(1636.12~1637.1).

② (독일의 유대계 상인인 에른스트) 오페르트(1832~1903)가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한 곳은 충남 예산이다(1868.5, 정확하게는 충남 예산 덕산면 상가리).

③ 다산 정약용(1862~1836)이 유배 중에 경세유표를 저술한 곳은 전남 강진이다(1817, 순조 17).

⑤ 노동자 강주룡(1901~1931)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곳은 평양이다(1931.5).

17 - 완도(청해진)

정답> ②

남해의 주요 섬인 (가) 진도, (나) 완도, (다) 거문도, (라) 거제도, (마) 영도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통일 신라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섬은 완도이다[828(흥덕왕 3)~851(문성왕 13)].

오답 해설>

①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구실로 불법 점령한 섬은 (진도가 아니라) 거문도이다(1885.4~1887.2).

③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가 설치된 섬은 (거문도가 아니라) 거제도이다(1951.2~1953.7)

④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명분으로 조차를 요구한 섬은 (거제도 가 아니라) 영도[당시 이름 절영도]이다(1897.7).

⑤ 삼별초가 용장성을 쌓고 몽골에 대항한 섬은 (영도가 아니라) 진도이다(1270.6~1271.5).

18 - 고려 시대의 경제 모습

정답> ①

말풍선에 '일전에 나의 아우인 의천이 화폐를 사용하면 쌀 운반의 수고를 덜고, 간교한 무리의 속임수를 막을 수 있으며, 녹봉 지급과 국가 재정 관리에 편리하다고 건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제 주전도감에서 화폐를 발행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말풍선의 내용은 고려 숙종 대(재위 1095~1105)에 단행된 화폐 발행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해동통보가 주도되어 유통된 것은 고려 숙종 7년인 1102년의 일이다. 주전도감이 설치된 것은 숙종 2년인 1097년이며, 해동통보 외 삼한통보, 해동중보, 활구(은병)이 발행되었다. 참고로 말풍선에 나오는 숙종의 동생 의천은 말 그대로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다.

오답 해설>

- ② 전환국에서 백동화가 발행된 것은 조선 고종 20년인 1883년의 일이다.
- ③ 중국 화폐인 명도전, 반량전이 널리 사용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기원전 5세기 이후).
- ④ 상평통보가 발행되어 널리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숙종 4년(1678) 이후의 일이다.
- ⑤ 궁궐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흥선 대원군에 의해) 당백전이 발행된 것은 조선 고종 3년인 1866년의 일이다(1866.11~1867.4).

19 - 고려 인종 대의 사실

정답> ⑤

'백관을 소집하여 금을 섬기는 문제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유독 이자겸, 척준경만이 금이 정치를 잘하고 병력도 강성하여 날로 강대해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신을 보내 먼저 예를 갖추어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내용이 나와 있다. 금의 군신 관계 요구를 수용한 이자겸의 굴욕 외교를 보여 주는 장면으로, 고려 인종 4년인 1126년의 일이다.

묘청이 수도를 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면서 봉기한 것은 인종 13년인 1135년의 일이다(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인종의 재위 기간은 1122-1146).

오답 해설>

- ①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올린 것은 고려 명종 26년인 1196년의 일이다.
- ② (공주) 명학소의 망이·망소이가 봉기한 것은 고려 명종 6년인 1176년의 일이다.
- ③ 최무선의 건의로 (화약 및 화기의 제조를 담당하는) 화통도감이 설치된 것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의 일이다.
- ④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을 제거한 것은 고려 목종 12년인 1009년의 일이다. 거란 성종이 이를 빌미로 제2차 침입을 단행하였다(1010, 현종 원년).

20 - 과전법

정답> ②

(가)에는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에 머물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태조가 여러 장수들에게 말하기를,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으나, 왕도 살피지 아니하고, 최영도 늙고 정신이 혼몽하여 듣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고려 우왕 14년인 1388년 5월에 발생한 위화도 회군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에는 '[대소 신료들이] 왕위에 오를 것을 간절히 권하여, 태조가 마지 못해 수창궁(개경 소재)으로 행차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태조가 말에서 내려 걸어서 대전에 들어가 왕위에 올랐는데, 어좌(御座)를 피하고 기둥 안에 서서 여러 신하들의 하례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태조 이성계가 즉위한 1392년 7월의 일임을 알 수 있다.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한 것은 고려 공양왕 3년인 1391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녹읍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한 것은 신라 신문왕 대의 일이다(각 689/687).
- ③ 양지아문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을 실시한 것은 대한 제국 때의 일이다(1899~1904, 양지아문 설치는 1898년).
- ④ 공로와 인품에 따라 역분전을 차등 지급한 것은 고려 태조 23년인 940년의 일이다.
- ⑤ 직전법을 실시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 것은 조선 세조 12년인 1466년의 일이다.

21 - 점필재 김종직

정답> ③

'조선 시대에 활동했던 문신 겸 학자로 영남 학파의 종조(宗祖)로 불리며 호는 점필재'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의 학통을 이은 사람으로 정여창, 김굉필, 김일손 등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또 사진 자료로 예림 서원(경남 밀양 소재)과 추원재가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인물은 점필재 김종직(1431~1492)임을 알 수 있다.

김종직은 (연산군 4년인 1498년에 발생한) 무오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갑술환국이 일어난 것은 숙종 20년인 1694년의 일이다.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②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한 인물은 정암 조광조(1482~1519)이다.
- ④ 색경을 저술하여 농업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은 서계 박세당(1629~1703)이다(1676, 숙종 2).
- ⑤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 학파 형성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은 하곡 정제두(1649~1736)이다.

22 - 기술직 중인

정답> ⑤

왼쪽 말풍선에는 '허생전에 나오는 변 부자가 조선 시대 역관 변승업의 할아버지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중간 말풍선에는 '변승업이 사역원 소속의 일본어 역관으로 큰 부자가 된 인물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는 '변승업과 같은 역관들이 속한 신분을 (가)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의관, 천문관, 율관 등도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중인, 그중에서도 (서열이 아닌) 기술직 중인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술직 중인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시사(詩社)를 조직해 위항 문학 활동을 하였다. 위항 문학이란 조선 후기 한성을 중심으로 중인들과 평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문학 양식을 일컫는 말로 여항 문학이라고도 한다.

오답 해설>

- ① 소속 관청에 신공(身貢)을 바친 신분은 공노비이다.
- ②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된 신분은 노비, 그중에서도 사노비이다.
- ③ 원칙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던 신분은 천인이다(노비도 천인에 속함, 천인이 상위 개념).
- ④ 장례원(掌隸院)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은 신분은 노비이다.

23 - 제1차 왕자의 난

정답> ②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여러 왕자를 해치려 꾀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참형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정안군이 도당(都堂)으로 하여금 소를 올리게 하였는데, 후계자를 세울 때에 장자로 하는 것이 만세의 상도(常道)인데, 전하께서 장자를 버리고 어린 아들을 세웠으며, 정도전 등이 세자를 감싸고서 여러 왕자를 해치고자 하여 난신(亂臣)이 참형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여기서 '정안군'은 곧 태종 이방원으로, 제시된 자료는 결국 1398년 8월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발생한 제1차 왕자의 난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일명 방원의 난 또는 무인정사, 정도전의 난이라고도 부른다. 참고로 자료 말미의 '적장자 영안군'은 이방원의 둘째형인 방과(정종)이다.

24 - 임진왜란(한산도 대첩)

정답> ①

왼쪽 자료에는 '임진년(1592)에 왕이 세자에게 평안북도 강계로 가서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키고 수습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은 의주로 행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임진왜란 초인 1592년 6월의 일이다[광해군 분조(分朝) 발족]. 오른쪽 자료에는 '계사년(1593)에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이 분조(分朝)에 들려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것은 1593년 1월의 일이다.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한 것은 1592년 7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② 정발이 부산진성 전투에서 전사한 것은 1592년 4월의 일이다.
- ③ 휴전 회담의 결렬로 정유재란이 시작된 것은 1597년 1월의 일이다.
- ④ 명의 요청으로 강홍립의 부대가 파견된 것은 광해군 10년인 1618년의 일이다.
- ⑤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이끌고 활약한 것은 정묘호란 때의 일이다(1627, 인조 5).

25 - 보은 법주사 팔상전

정답> ⑤

'국보 제55호인 (가)은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 시대 목탑'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는데, 인조 때 다시 조성된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가람 배치도'에는 석련지(국보 제64호)와 쌍사자 석등(국보 제5호)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17세기의 건축물인 보은 법주사 팔상전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석련지(石蓮池)란 '돌로 만든 연꽃 모양 연못'이라는 뜻이다.

오답 해설>

- ①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은 조선 중기인 17세기의 건축물이다.
- ② (김제) 금산사 미륵전도 17세기의 건축물이다.
- ③ (구례) 화엄사 각황전 역시 17세기의 건축물이다.
- ④ (부여) 무량사 극락전은 17~18세기의 건축물이다.

26 - 기사환국

정답> ⑤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이 산림(山林)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험난한 때에 감히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삭탈관작하고 성문 밖으로 내쳐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송시열을 구하려는 자는 비록 대신이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왕이 말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상황은 세자 책봉 문제로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이 축출당한 기사환국 때임을 알 수 있다(1689, 숙종 15). 이 직후 인현 왕후(1667~1701)가 폐위되고 희빈 장씨(1659~1701)가 왕비로 책봉되었다(남인 집권).

오답 해설>

- ① 공신 책봉 문제로 이괄의 난이 일어난 것은 인조 2년인 1624년이다.
- ②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발생한 것은 선조 22년인 1589년이다.
- ③ 허적과 윤희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된 것은 경신환국 때의 일이다(1680, 숙종 6).
- ④ 복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한 것은 광해군 대(재위 1608-1623)의 일이다

27 -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정답> ③

왼쪽의 말풍선에는 '유수원이 최근 (가)를 편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는 '상공업의 진흥에 힘써야 한다는 점, 양반들도 농업과 상공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중상학과 실학자인 농암 유수원(1694~1755)이 편찬한 책 (가)는 『우서』를 가리킨다. 유수원이 지방관으로 근무하던 40세 전후(1729년에서 1737년 사이, 영조 5~13)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한다.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동시전이 설치된 것은 신라 지증왕 10년인 509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개시 무역과 후시 무역이 이루어진 것은 조선 후기에 해당한다.
- ② 담배, 면화와 같은 상품 작물이 재배된 것 역시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④ 송상, 만상이 대청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것 역시 조선 후기이다.
- ⑤ 모내기법의 확대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확산된 것도 조선 후기이다.

28 - 조선 정조의 업적

정답> ③

'이곳 만석거(萬石渠)는 이 왕이 수원 화성을 건립하면서 축조한 수리 시설 중 하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수갑(水閘) 및 수도(水道)를 만든 기술의 혁신성, 백성들의 식량 생산에 이바지한 점, 풍경의 아름다움 등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세계 관개 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수원 화성을 건립하였다는 부분을 통해 제시된 자료의 '이 왕'은 조선 정조(재위 1776-1800)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수원 화성은 정조 18년인 1794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2년 7개월 만에 완공되었다(~1796.9). 또 만석거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다.

정조는 재위 5년인 1781년에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여 문신들을 재교육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한 왕은 성종이다(1478, 성종 9).
- ② 균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균역법을 제정한 왕은 영조이다(1750, 영조 26).
- ④ 봉당의 피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를 건립한 왕 역시 영조이다(1742, 영조 18).
- ⑤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한 왕은 철종이다(1862, 철종 13).

29 - 조선 명종 대의 사실(을사사화)

정답> ④

왼쪽 말풍선에는 '양재역에 벽서가 붙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물으면서 대비께서 권력을 잡고 간신이 설치니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는 '대비마마와 이기, 윤원형 등이 가만있지 않을테니, 이로 인해 곧 조정에 큰 변고가 생길까 두렵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경기도 과천) 양재역에 벽서가 붙었다는 소문'은 이른바 조선 명종 2년인 1547년에 일어난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소윤인 윤원형 일파가 대윤의 남은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다. 참고로 말풍선의 대비마마는 당시 섭정을 하던 문정 왕후(1501~1565)를 가리키며, 이로 인해 다시 많은 사람이 화를 입었다(정미사화라고도 함).

2년 전인 명종 원년(1545)에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신유박해로 천주교인들이 처형된 것은 순조 원년인 1801년의 일이다.
- ② 사람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된 것은 선조 8년인 1575년의 일이다.
- ③ 홍경래 등이 봉기하여 정주성을 점령한 것은 순조 11년인 1811년의 일이다(홍경래의 난).
- ⑤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된 것은 두 차례로 모두 현종 대의 일이다[각 1659(기해예송)/1674(갑인예송), 현종 즉위년/현종 15].

30 - 세시 풍속, 유두

정답> ④

'액운 쫓고 더위 쫓는, (가)'라는 제목이 나와 있다. 이어 "(가)는 음력 6월 보름날로 이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면 나쁜 기운이 날아가고,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탁족 놀이, 햇밀로 구슬 모양의 오색면 만들기, 수단 만들기'가 체험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어 있다.

음력 6월 보름날의 세시 풍속이라는 것에서 벌써 (가)는 '6월 유두'임을 알 수 있다(6.15). 오색면은 유두면이라고도 하며, 수단 외 건단, 연병 등을 만들어 먹었다.

오답 해설>

- ① 동지는 음력 11월 중순에 행한 세시 풍속이다.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작은 설'로도 불렸다. 팔죽을 쑤어 먹었다.
- ②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양력으로 4월 5일 또는 6일에 해당한다(4월 한식).
- ③ 칠석은 음력 7월 7일에 행한 세시 풍속이다(7월 칠석).
- ⑤ 삼진날은 음력 3월 3일에 행한 세시 풍속이다(3월 삼진날).

31 -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

정답> ⑤

(가)의 제7관에는 '일본국 인민은 본국의 현행 여러 화폐로 조선국 인민이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으며, 조선국 인민은 그 교환한 일본국의 여러 화폐로 일본국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상품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일본 화폐의 조선 내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를 보완하기 위해 동년(1876) 8월에 조인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다(제7관).

(나)의 제6칙에는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인민은 양미와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일본으로의 양곡의 무제한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같은 날 체결된 조일 무역 규칙이다(제6칙). 일본과의 최초의 통상 장정으로, 일본 상인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 두 조약은 모두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치로 체결된 것이다(1876.8).

오답 해설>

- ① 임오군란을 계기로 체결된 조약으로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과 제물포 조약이 있다(1882.8).
- ② 최혜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한 조약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1882.5, 제2조).
- ③ 조선책략의 영향으로 체결된 조약 역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청의 북양대신 이홍장의 주선).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김홍집(1842~1896)이 조선책략을 가져와 고종에게 바친 것은 1880년 9월의 일이다.
- ④ 거중 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제1조).

32 - 서울 진공 작전(13도 창의군)

정답> ②

'해산 결의 이틀 전 오전에 군부 대신과 하세가와 대장이 통감부에 모여 현재 한국 군대를 해산하기로 결정한 결과로'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9시 40분에 총리와 법무 대신이 황제에게 아뢰고 후에 조칙을 반포하였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 시킨 후 바로 시행된 대한 제국의 군대 해산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1907.7.31).

13도 창의군이 결성된 것은 1907년 12월이고, 서울 진공 작전이 전개된 것은 이듬해인 1908년 1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로써 항거한 것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직후의 일이다.
- ③ (재정 고문) 메가타가 주도한 화폐 정리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05년 7월의 일이다(~1909.12).
- ④ 고종이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것은 1907년 4월의 일이다.
- ⑤ 구식 군대가 난을 일으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한 것은 1882년 6월의 일이다(임오군란).

33 - 신민회

정답> ⑤

'(가)는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 결사 단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국권을 회복한 뒤 공화 정체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실력 양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무엇보다 국민을 새롭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 단체'는 1907년 4월에 결성된 신민회임을 알 수 있다.

신민회 내 강경파는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론을 주장하였는데, 1911년 봄 남만주(서간도)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 즉 경학사를 건설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연통제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은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1919.7).
- ②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한 단체는 보안회이다(1904.7).
- ③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한 단체는 독립 협회이다(1898.11).
- ④ 복벽주의(復辟主義)를 내세우며 의병 전쟁을 준비한 단체는 임병찬(1851~1916)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조직한 (대한)독립 의군부이다(1912.9). 참고로 복벽주의란 물러났던 군주를 다시 왕위에 올리는 것으로 쉽게 말해 군주정(君主政)을 회복하려는 사상을 가리킨다. 왕정복고(王政復古)나 보황주의(保皇主義)를 뜻한다고 보면 된다.

34 - 갑신정변

정답> ①

'개화당,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는 제목하에 '근대적 개혁을 추구 하였던 (가)을 다큐멘터리 형식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우정총국 개국 축하 연 때 거사 장면'이 구성 내용 중 하나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 사건'은 1884년 12월에 급진 개화파에 의해 발생한 갑신정변임을 알 수 있다.

갑신정변을 주도한 이들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의 급진 개화파이다.

오답 해설>

- ② 김기수(1832~?)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것은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인 1876년 4월의 일이다.
- ③ 구본신참(舊本新參)에 입각한 개혁이 추진된 것은 광무개혁 때의 일이다(1897~1904).
- ④ (조선 조정에 의해)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된 것은 1880년 12월의 일이다.
- ⑤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흥범 14조가 반포된 것은 1895년 1월의 일이다.

35 - 동학 농민 운동

정답> ③

'기록화로 보는 (가)'라는 제목이 나와 있다. 이어 '고부 관아 점령'과 '황룡촌 전투', '삼례 집결', '우금치 전투' 순으로 기록화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의 '(가) 운동'은 1894년에 일어난 동학 농민 운동임을 알 수 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봉기한 동학 농민군이 고부 관아를 점령한 것은 1894년 1월 11일(음력, 이하 동일)의 일이고(고부 농민 봉기), 황룡촌 전투에서 관군(중앙 경군)을 물리친 것은 동년 4월 23일의 일이다. 또 2차 봉기를 위해 동학 농민군이 삼례에 집결한 것은 동년 9월 4일의 일이고, 우금치 전투가 벌어진 것은 11월 9일의 일이다.

동학 농민군은 전주성 점령 후 조선 조정과 전주 화약(동년 5월 8일)을 맺고 물러난 후 동년 7월 6일 합의를 통해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 개혁안을 실천하였다(1894.7~9, 전라도 일대).

오답 해설>

- ① 을사늑약에 반발하여 봉기한 운동은 을사의병이다(1905).
- ② 백낙신의 탐학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것은 진주 농민 봉기이다(1862). 이후 곧 전국으로 봉기가 확산되었는데, 이를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한다.
- ④ 유계춘(?~1862)을 중심으로 봉기하여 진주성을 점령한 것 역시 진주 농민 봉기이다.
- ⑤ 홍의장군으로 불린 광재우(1552~1617)가 의병장으로 활약한 것은 임진왜란 때의 일이다

36 -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정답> ⑤

'광주고보, 중학생 총돌 사건'이라는 제목 하에 '지난 3일 광주 역 부근 일대에서는 광주 공립 고등 보통학교 학생과 광주 일 본인 중학교 학생 각 300여 명이 다투어 쌍방에 수십 명의 부상자를 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두 학교에서는 극도로 감정이 격앙된 학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6일까지 사흘 동안 임시 휴교를 하였는데 쌍방 학생의 기세는 아직도 험악하다고 하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1929년 11월 3일에 발생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전라도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 항일 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동맹 휴학의 도화선이 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난 것은 1926년의 6·10 만세 운동이다.
- ② 일제의 무단 통치를 완화시키는 배경이 된 것은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이다.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된 것도 3·1 운동이다.
- ④ 대한매일신보의 후원 속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 보상 운동이다(1907.2).

37 - 관민 공동회

정답> ②

(가)에는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지내고 왕태자가 배참하여 예를 마친 뒤 의정부 의정 심순택이 백관을 거느린 채 아뢰기를, 제례를 마쳤으므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소서라고 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임금이 두 번 세 번 사양하다가 옥새를 받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고종이 환구단(원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하고 대한 제국을 수립한 1897년 10월의 일임을 알 수 있다.

(나)에는 '본소(本所)에서 대한국 국제(國制)를 잘 상의하고 확정하여 보고하라는 조칙을 받들어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국제 1편을 정함으로써, 본국의 정치는 어떤 정치이고 본국의 군권은 어떤 군권인가를 밝히려 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1899년 8월 반포된 대한국 국제와 관련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관민 공동회가 개최된 것은 1898년 10월의 일이다. 독립 협회에 의해 1898년 3월 개최되기 시작한 것이 관민 공동회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영화 아리랑이 (단성사에서 처음) 상영된 것은 1926년 10월의 일이다.
- ③ 육영 공원이 문을 연 것은 1886년 9월의 일이다. 미국인 병커, 헐버트, 길모어 등을 교사로 초빙하였고, 문·무관 유생 중 어리고 총명한 자 40명을 선발하여 교육하였다.
- ④ 경부선 기차가 개통한 것은 1905년 1월의 일이다.
- ⑤ (항일 여성 운동 단체인) 근우회가 설립된 것은 1927년 5월의 일이다.

38 - 대종교

정답> ④

'대한 제국 육군 무관 학교 출신의 오석 김혁(1875~1939)이 나철이 창시한 (가)에 귀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김혁이 자유시 참변 이후 북만주 일대의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하여 신민부를 조직하고 최고 책임자로 활동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자료에서 제시된 (가)는 홍암 나철(1863~1916)이 1909년에 창시한 대종교임을 알 수 있다.

대종교는 1911년 중국 동북(동베이) 지방에서 중광단을 조직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후 1919년 10월 북로군정서로 확대 개편되었다(김좌진 사령).

오답 해설>

- ①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한 종교는 천도교이다(1920년 개벽사 설립, 개벽은 1920년 6월, 신여성은 1923년 9월에 발행).
- ②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힘쓴 종교 역시 천도교이다(1906.6).
- ③ 여성 교육을 위해 이화 학당을 설립한 종교는 기독교이다. 1886년 5월 미국 북감리교 여선교부의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이 서울 정동의 자택에서 한 명의 학생으로 수업을 개시한 것이 시초다.
- ⑤ 박중빈(1891~1943)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과 간척 사업)을 추진한 종교는 원불교이다(1910년대 후반과 1920년대 전반).

39 - 의열단

정답> ①

'어제 12일 상하 10시 20분에 조선 총독부에 폭탄 두 개가 투척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폭탄을 던진 사람은 즉시 종적을 감추었으므로 지금 엄중 탐색 중이요, 폭발 소리가 돌연히 일어나자 총독부 안은 물 끓듯 하여 한바탕 아수라장을 이루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 속 사건은 의열단원 김익상(1895~1941)에 의한 조선 총독부 투폭 사건임을 알 수 있다(1921.9).

의열단은 단재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1923.1).

오답 해설>

- ② 윤봉길, 이봉창 등이 단원으로 활동한 단체는 백범 김구가 조직한 한인 애국단이다(1931.10).
- ③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인 김규식을 통해) 독립 청원서를 제출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1919.5)
- ④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한 이들은 서간도 지역의 신흥 학교(신흥 강습소) 설립자들(이회영, 이상룡, 김동삼 등)와 교관들, 졸업생들이다(1919.5).
- ⑤ 독립군 비행사 육성을 위해 한인 비행(기) 학교를 세운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노백린 주도, 1920.2). 미국에서 쌀농사로 거부가 된 김종림(1884~1973)의 전폭적인 재정적 후원이 뒷받침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소도시 윌로우스(Willows) 시에 세워져 일명 '윌로우스 비행 학교'로 부르기도 한다.

40 - 대한민국 건국 강령

정답> ③

'중·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 막 두 번째 겨울을 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총독부는 주민들에게 갖고 있는 금붙이를 팔라고 요구한다. 아녀자들은 가보로 내려오던 패물을 내놓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중·일 전쟁이 시작된 것은 1937년 7월이므로 제시된 자료에서 말하는 '두 번째 겨울'이란 1938년 겨울임을 알 수 있다. 출처가 『윤치호 일기』로, 윤치호(1865~1945)는 주지 하듯이 한말 개화파이자 대표적인 친일파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건국 강령을 발표한 것은 1941년 11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된 것은 1927년 9월의 일이다.
- ② 사회주의 세력이 정우회 선언을 발표한 것은 1926년 11월의 일이다. 1927년 2월 신간회 결성의 한 배경이기도 하다.
- ④ 독립군 연합 부대가 청산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은 1920년 10월의 일이다(청산리 대첩).
- ⑤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전개된 것은 1929년 1월의 일이다(~4월).

41 - 대한 광복회

정답> ①

'총사령 박상진이 이끌었던 (가) 소속의 김한종 의사 순국 기념비'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김한종 의사(1883~1921)는 이 단체의 충청도 지부장으로, 군자금 모금을 방해한 아산의 도고 면장인 박용하 처단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박상진과 함께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의 (가)는 박상진(1884~1921)이 군대식으로 조직하여 이끌었던 대한 광복회임을 알 수 있다(1915.7), 김좌진(1889~1930)이 부사령].

대한 광복회는 공화 정체의 국가 건설을 지향하였다.

오답 해설>

-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것은 1919년 4월의 일이다.
- ③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단체는 흥범도의 대한 독립군이다(1920.6). 군무 도독부(최진동), 대한 국민회군과 연합하였다.
- ④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 활동을 전개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1919.9).
- ⑤ 중국군과 함께 영릉가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린 단체는 조선 혁명군(양세봉)이다(1932.3~7).

42 - 국민 대표 회의

정답> ①

'본 국민 대표 회의는 이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지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아래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어 1923년 1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국민 대표 회의와 관련된 선언서임을 알 수 있다(국민 대표 회의는 동년 6월까지 74차례 회의 진행, 하지만 창조파와 개조파가 극렬히 대립하다 결국 결렬). 선언서가 발표된 것은 1919년과 1925년 사이인 (가) 시기에 속한다(구체적으로는 1923년 2월 20일 작성).

43 - 산미 증식 계획

정답> ③

'조선 내부의 민심도 안정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지방 자치를 실시하여 민의 창달의 길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차별 대우를 철폐하고 동시에 조선인 소장층 중 유력자를 발탁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자료의 출처가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제3대 조선 총독으로 취임했던 사이토 마코토(통치 1919.8-1927.12)의 「조선 통치에 대하여」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시된 시기는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시도한 1920년대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시된 자료의 요점은 결국 일제의 지배에 협조할 '친일파'를 육성하겠다는 말이다.

쌀 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된 것은 1920년 11월의 일이다(~1934).

오답 해설>

- ① 노동력 동원을 위해 국민 징용령을 시행한 것은 1939년 10월의 일이다(조선에 적용한 시점).
- ② 한국인에 한해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을 공포한 것은 1912년 4월의 일이다(~1920.3).
- ④ 독립운동 탄압을 위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을 공포한 것은 1936년 12월의 일이다. 참고로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공포한 것은 1941년 2월의 일이다.
- ⑤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제정한 것은 1910년 12월의 일이다.(허가제 회사령, 신고제 회사령으로 바꾼 것은 1920년 4월).

44 - 신간회

정답> ①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각성을 촉진함',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우리는 일체 기회주의를 부인함'이라는 3대 강령 하에서 탄생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 단체'는 1927년 2월에 결성된 신간회임을 알 수 있다.

신간회는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되었다.

오답 해설>

- ② 이상설, 이동휘를 정·부통령에 선임한 단체는 1914년 연해주에서 조직된 대한 광복군 정부이다(동년 9월 해체).
- ③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조직이 해체된 단체는 1907년 4월에 비밀리에 결성된 신민회이다(1911.9).
- ④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 한 단체는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조직한 (대한)독립 의군부이다(1912.9).
- ⑤ 오산 학교와 대성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한 단체는 신민회이다(각 1907.12/1908.9).

45 - 약산 김원봉

정답> ②

1919년에 의열단을 조직하였고, '1932년에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한 사실이 나와 있다. 이어 1935년에는 민족 혁명당을 조직하였으며, 1937년에는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인물은 약산 김원봉(1898~1958)임을 알 수 있다. 제시된 연보에 나와 있듯이 김원봉은 1938년에는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으며 이후 임정에 합류, 1944년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군무부장을 역임하였다.

1942년 5월 임정에 합류한 김원봉은 한국 광복군 제1지대장 겸 부사령관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총사령 지청천).

오답 해설>

- ① (미국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한 인물은 우성박용만(1881~1928)이다(1914.6).
- ③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인물은 안중근(1879~1910)이다.
- ④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쌍성포 전투에서 승리한 인물은 백산 지청천(1888~1957)이다(1932년 9월과 11월).
- ⑤ 일제의 패망과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한 인물은 몽양 여운형(1886~1947)이다(1944.8).

46 - 사사오입 개헌

정답> ③

'정부, 개헌안 통과로 인정'이라는 제목 하에 '27일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하여 135표의 찬성표가 던져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민원의원의 3분의 2는 정확하게 계산할 때 135 $\frac{1}{3}$ 로 표결상 전례가 없었으나 단수(端數)를 계산에 넣지 않아야 하므로 개헌안은 통과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1954년 11월에 발생한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제2차 개헌)'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사오입 개헌의 핵심은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종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연 셈이다.

오답 해설>

- ① 대통령 중심제가 의원 내각제로 바뀐 개헌은 1960년 4·19 혁명 결과로 탄생한 제3차 개헌이다(1960.6).
- ②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된 것은 이른바 '유신 헌법'인 제7차 개헌의 시행 결과이다(1972.12).
- ④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7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실시된 것은 제8차 개헌의 시행 결과이다(1980.10).
- 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인 5·10 총선거가 실시된 것은 1948년 5월 10일의 일이다. 그 결과 제헌 국회가 구성되어 동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만들어졌다.

47 - 6.3 시위(1964)

정답> ②

(가)의 1에는 '무상 원조에 대해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공여하는 조건으로 양측 수뇌에게 건의함'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3에서는 '수출입 은행 차관에 대해 양측 합의에 따라 국교 정상화 이전이라도 협력하도록 추진할 것을 양측 수뇌에게 건의함'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가)는 1962년 11월에 있었던 김종필·오하라의 비밀 회담 결과 도출된 '김종필·오하라 메모'임을 알 수 있다.

(나)의 제1조에는 '양 체약 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2조에서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65년 6월 22일 조인된 한·일 협정임을 알 수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되고 이에 대해 박정희 정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1964년 6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것은 1953년 10월 1일의 일이다.
- ③ 경찰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습격한 것은 1949년 6월 6일의 일이다.
- ④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1898~1959)이 구속된 것은 1958년 1월의 일이다(진보당 사건, 1959년 7월 사형 집행).
- ⑤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6월의 일이다(1950년 3월 공포).

48 - 유신 체제 하의 모습

정답> ④

'긴급 조치 제9호의 후속 조치로 수립된 「공연물 및 가요 정화 대책」에 따라 한국 예술 문화 윤리 위원회가 국내 대중 가요 222곡을 금지곡으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금지곡으로 선정한 이유로 '국가 안보 위협, 왜색 풍, 창법 저속, 불신 풍조 조장, 퇴폐성 등이 제시되어 있다. 긴급 조치 제9호가 선포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5년 5월이고, 「공연물 및 가요 정화 대책」이 나온 것은 동년 6월이다.

거리에서 자를 들고 미니 스커트를 단속하거나 가위를 들고 장발을 단속한 것도 이 시기로, 정확하게 말하면 (박정희 정부 시기라기보다는 박정희 정부의 말기에 해당하는) 유신 체제기(또는 긴급 조치 시기)라 할 수 있다(1972년에서 1979년까지의 시기).

오답 해설>

- ① 프로 축구가 출범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3년 5월의 일이다.
- ② 개성 공단 착공식이 있었던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6월의 일이다.
- ③ 금융 실명제가 시행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의 일이다.
- ⑤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은 1998년 1월에서 4월까지의 일이다. 김영삼 정부 말에서 김대중 정부 초에 해당한다(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당선자가 제 15대 대통령으로 취임).

49 - 6월 민주 항쟁

정답> ②

'국민 합의 배신한 4·13 호헌 조치는 무효'라는 제목이 나와 있다. 이어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1987년 6월에 발생한 6월 민주 항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6월 민주 항쟁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이 나왔으며,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제9차 개헌, 현행 헌법)이 이루어졌다(1987.10). 자료 속 '꽃다운 젊은이'는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에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다가 숨진 박종철 열사(1964~1987)이다.

오답 해설>

- ①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된 민주화 운동은 1960년 4월에 발생한 4·19 혁명이다.
- ③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 역시 4·19 혁명이다.
- ④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 ⑤ 3·1 민주 구국 선언을 통해 긴급 조치 철폐 등을 요구한 것은 1976년 3월 1일의 일이다. 유신 체제 하 대표적인 반유신 운동으로, 서울 명동 성당에서 일부 재야 정치인들과 가톨릭 신부, 개신교 목사, 대학 교수 등에 의해 발표되었다.

50 - 노태우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

정답> ①

'지난 2년 동안 냉전 체제의 다른 한쪽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국교를 열고 이웃 중국과도 무역 대표부를 교환 설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남북한의 유엔 가입은 한국 전쟁 이후 남북 관계의 가장 큰 전환일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경축사는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9월 18일 남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을 기념하는 경축사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한·소 수교가 이루어진 것은 1990년 9월 30일이며, 한중 무역대표부가 교환 설치된 것은 1990년 10월 20일이다(한·중 수교는 1992년 8월 24일).

남북한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 기본 합의서가 교환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②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7월의 일이다.
- ③ 10·4 남북 공동 선언이 채택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10월의 일이다(제2차 남북 정상 회담).
- ④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이 시작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 11월의 일이다. 참고로 금강산 육로 관광 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로 관광은 2004년 1월부로 중단되었다.
- ⑤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실현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9월의 일이다.